

백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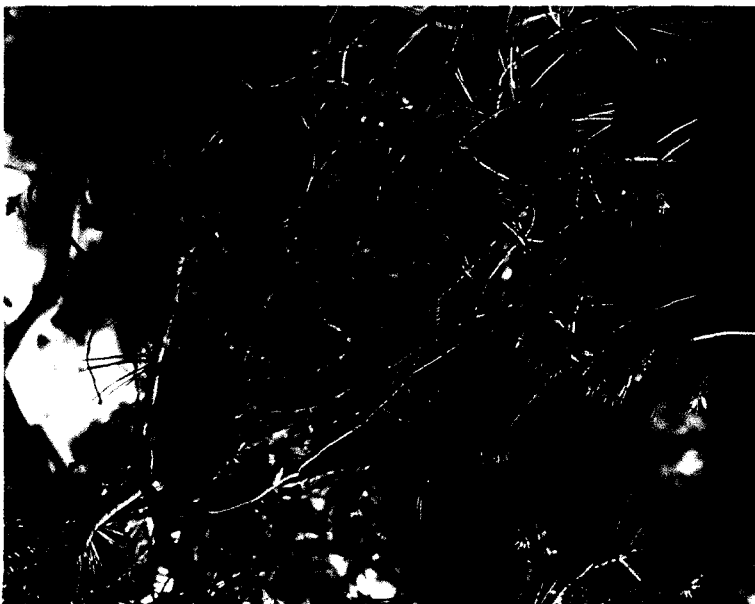
- ▶ 과명 : 소나무과
- ▶ 학명 : Pinus bungeana
- ▶ 영명 : Lace-bark Pine, Bunge's Pine, Bungeskiefer
- ▶ 한명 : 白松, 唐松, 白首松, 白骨松
- ▶ 일명 :しろま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중국에서 도입되어 인가 부근에 식재되거나 서원 등 선비가 기거하는 곳에 많이 식재된 상록침엽 큰키나무로 나이가 들면서 줄기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백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白松이란 이름이 붙여 졌다. 최근들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600년 내외의 수령인 것을 보면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수령이 다 된 것 아닌가 판단이 된다.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백송

우리의 조상들은 백송의 귀한 것을 알아 나름대로 번식법을 개발하였는데 그방법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진흙으로 구워 만든 골기와를 땅속에 놓고 거기에 흙을 채워 종자를 파종하여 관리하는데 거기에 쓰는 토양은 토양내 균을 죽이기 위하여 무쇠술에서 흙을 구워서 사용하였다 한다. 지금으로 보면 발아시 발생하는 입고병을 사전에 막기위한 지혜였다고 본다. 그래서 발아가 되면 식재하고자 하는 장소에 이식하여 이식후 고사하는 것을 막았다 하니 참으로 조상의 지혜를 본받을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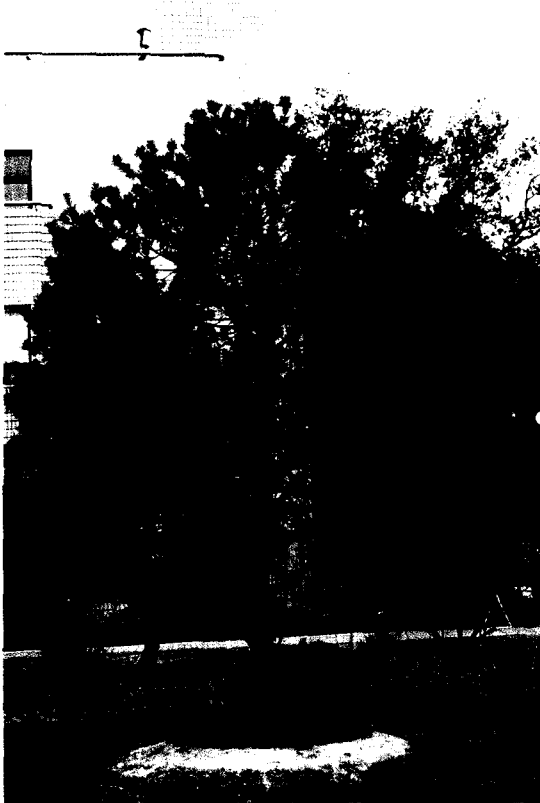
▲ 백송

1. 생태적 특성

중국 고유종으로 중국의 북부, 서부등 넓게 분포하는 상록침엽 큰키나무로 수고 20~30m까지 자라며 직경은 0.6~1.2m까지 자라며 넓은 원추형으로 지상 1~2m 부위에서 여러개의 줄기가 갈라져 자라기도 한다. 40년정도 자라면 줄기에서 큰 비늘같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하얗게 변한다. 양수로서 햇빛을 좋아하며 추위에도 잘 견디며 대기오염에도 강하다.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양에서 생장이 양호하며 산성토양을 좋아한다. 뿌리에 잔 뿌리가 적어 이식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3개씩 모여나며 길이 7~9cm, 넓이 1.8mm로서 3능형을 이루며 꽃은 암수 한그루로 5월에 피며 열매는 이듬해 10월에 익으며 길이 6cm, 넓이 4.5cm이고 종자는 길이 9~12mm, 넓이 7~9mm로 난형이고 황갈색 줄이 있으며 불완전한 날개가 있다.



▲ 백송



▲ 백송



▲ 백송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수피가 백색으로 진기스럽고 아름다우며 백색과 녹색의 조화가 우아하여 예부터 승려와 학자들이 이를 신비스럽게 생각하여 사원과 정원에 기념수로 많이 식재하여 왔다.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에 토심이 깊고 약간 높은곳에 식재하여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곳이면 더욱 품위있는 백송을 볼수 있을 것이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파종에 의하며 삽목도 가능하나 활착율이 극히 낮아 거의 시도하지 않고 있다.

○ 파종

10월에 익는 구과를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 종자를 정선한뒤 섭씨 5°C에 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노천매장 후 파종하며 3주후에 발아하는데 발아율은 60%내외이다. 묘장에서 1년생일 때 입고병의 발병율이 높으므로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용도

대부분 기념수나 조경수로 사용하며 목재는 가공이 용이하여 기구재로 사용한다. 